

노다 히데키(野田秀樹)의 「판도라의 종」에 나타난 ‘천황의 전쟁 책임’에 관한 연구

송 선 호*

(e-mail : s2unho@hanmail.net)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
| 2. ‘천황의 전쟁 책임’ 문제의 배경 | 3.1.2. 전시 체제에 대한 비판 |
| 3. 「판도라의 종」에서 제기된 문제의식 | 3.2. ‘천황의 전쟁 책임’에 대한 문제의식 |
| 3.1. 전쟁에 대한 문제의식 | 4. 「판도라의 종」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의 한계 |
| 3.1.1. 전쟁의 성격 규정 | 5. 맺음말 |

키워드: 日本現代戯曲(Japanese modern drama), 天皇と演劇(Japanese emperor and theater), 太平洋戦争(Pacific War), 極東国際軍事裁判(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野田秀樹(Hideki Noda), パンドラの鐘(Pandora no Kane)

1. 머리말

노다 히데키(野田秀樹, 1955-)는 1980년대 일본의 경제 호황기에 걸맞은 감각적 무대로 전 시대의 안그라(アングラ) 연극¹⁾과 대별되는 연극적 방식을 제시한 극작가 겸 연출가이다. 시공을 초월한 판타지의 구현과 유희적 언어의 구사를 극작의 기법으로 삼는 그가 1990년대 이후 사회적 이슈를 다룬 「킬(キル)」(1994), 「타부(TABOO)」(1996), 「오일(オイル)」(2003) 등을 발표하는데,

* 중부대학교, 조교수, 연극학

1) 1960년대에 발생한 일본 ‘언더그라운드 연극’의 별칭. ‘안그라’의 명칭과 탄생에 대해서는 오자사 요시오, 송선호 역(2005) 「안그라의 탄생 - 60년대 연극」 김의경 외 편역 『20세기의 일본연극』, 연극과 인간. pp.35-68. 참조.

‘천황의 전쟁 책임’ 문제를 주제로 한 「판도라의 종(潘多라의鐘)」(1999)도 그 시기에 발표된 작품 중 하나이다. 다나카 지카오(田中千禾夫, 1905-1995)의 「마리아의 목(マリアの首)」(1959), 베쓰야쿠 미노루(別役実, 1937-)의 「성냥팔이 소녀(マッチ売りの少女)」(1966) 등 천황제와 전쟁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간접적 방식으로 다루어 온 이전 작품들과 달리 이 작품은 천황에 대한 비판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여 일본 연극계의 주목을 끈 바 있다.

한편 「판도라의 종」과 함께 이노우에 히사시(井上ひさし, 1934-2010)의 「가미야초 사쿠라호텔(紙屋町さくらホテル)」(1997), 사카테 요지(坂手洋二, 1962-)의 「천황과 입맞춤(天皇と接吻)」(1999) 등 ‘천황의 전쟁 책임’ 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비슷한 시기에 발표되는데, 이는 거품경제 붕괴 이후 일본 사회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천황에 대한 비판론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즉, 패전 이후 천황을 ‘신격체’에서 ‘인격체’로 변모시킨 ‘상징천황제’라는 제도 속에서 미결인 채로 남아 있던 ‘천황의 전쟁 책임’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연극 장르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 동안 노다 히데키의 작품 중 「빨간 도깨비(赤鬼)」(2005.10.12-16,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소극장), 「더 비(The Bee)」(2013. 6. 7-8, 명동예술극장), 「반신(半神)」(2014. 9.12-10. 5, 명동예술극장) 등이 한국에서 공연되었지만 이 작가와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반영한 안보법안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고²⁾, 이어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자민당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연극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작가의 희곡을 통해 일본 극작가의 사회적 태도를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천황의 전쟁 책임’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룬 노다의 「판도라의 종」에 담겨 있는 작가의 인식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중전 후 천황의 면책’에 관한 문제를 배경으로 살펴본 후 작품 속에 드러난 전쟁과 ‘천황의 전쟁 책임’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을 분석하여 그 의미와 한계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가 향후 ‘일본 현대 극작가의 역사적·사회적 인식’을 분석하는 연구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경향신문, 2015년 9월 19일. 1면 참조.

2. ‘천황의 전쟁 책임’ 문제의 배경

「판도라의 중」은 전쟁 중 원폭 투하로 희생된 일본 국민과 그 희생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다. 전쟁이 끝나고 반세기가 지난 시점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는 이유는 전후 전쟁 책임에 대한 처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며 현재 진행 중인 과거사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작품에서 제기된 ‘전쟁 중 천황의 행위’에 대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전쟁과 천황의 책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천황의 책임은 ‘개전(開戰)’과 ‘패전’, 그리고 ‘패전 전후 천황제 존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중일 전쟁은 차치하더라도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기습과 아시아 각지에서의 군사행동 개시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천황은 입헌군주로서 의회의 의결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천황제 파시즘 체제의 최고 권력자로서 전쟁에 가담한 사실이 정황으로 드러났기 때문에³⁾ 패전과 함께 천황에게 그 전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극동국제군사재판(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이하 도쿄재판)’⁴⁾에서 미국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천황이 면책됨으로써 전후 책임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미결로 남게 되었다. 패전 후 반세기가 지난 1999년에 일본 연극이 비로소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었고 또 그것이 일본 연극계의 화제가 된 것은 일종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데, 이러한 현상 역시 전후 전쟁 책임 문제에 대한 불명확한 처리에서 비롯된 결과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3) 사료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시 천황은 “꼭두각시 인형도, 평화를 애호하는 입헌군주도 아니었으며, 전쟁 과정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가라타니 고진, 송태욱 역(2001) 『윤리 21』, 사회평론. p.149). 내각은 국무에 관한 천황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었고, 특히 “천황의 군통수권은 입헌군주의 원리조차도 미치지 않는 ‘성역’이었으며 천황 자신도 대원수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박진우(2015) 「일본의 패전과 천황의 전쟁 책임 -‘성단’과 평화주의의 허구」 『동북아역사논총』 50, 동북아역사재단. pp.121-157. 중 p.136.).

4) 도쿄재판은 1946년 5월 3일 개정되어 약 2년 반에 걸친 심리 끝에 1948년 11월 12일 최종 판결을 내렸다. 미국, 영국, 소련,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 항복문서 서명국에 인도, 필리핀을 포함, 총 11개국이 검사단과 판사를 구성하여 ‘극동국제군사재판소헌장’을 근거법으로 28명의 일본 전범자들에게 교수형(7명), 무기징역(16명) 등의 판결을 내렸다(大沼保昭(2007) 『東京裁判, 戦争責任, 前後責任』, 東信堂. pp.27-28 참조). 그 후 12월 23일 A급 전범 25명 중 도조 히데키 등 6명에게는 사형을 집행하고, 나머지 19명은 석방한 후 재판을 종결하였다(이장희(2009) 「도쿄국제군사재판과 뉘른베르크국제군사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비교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5, 동북아역사재단. pp.195-246. 중 p.210. 참조).

종전 후 일본의 천황제와 천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후 일본을 점령통치해야 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매우 예민한 사안이었다. 1944년 12월 국무·육군·해군삼성조정위원회(SWNCC)가 설치되어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이미 천황제를 존속시킨다는 정책이 승인되는데, 이는 미국이 천황을 일본점령통치에 단기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전후 미국과 일본 양국의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결정이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⁵⁾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이미 천황의 처리 문제는 결정되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종전 후 미국 주도로 법정이 구성되고⁶⁾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시 “오스트레일리아의 맨스필드(Alan James Mansfield, 1902-1980) 검사가 천황의 소추를 정식으로 제의”⁷⁾했지만 미국 정부의 불소추 방침을 꺾을 수는 없었다. 1945년 10월 26일 극동소위원회는 천황의 체포와 재판, 처벌을 전제로 증거 수집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이하 G.H.Q.)의 최고사령관 맥아더(MacArthur, 1880-1964)는 ‘천황의 전쟁 책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으며, 만약 천황을 재판에 회부한다면 무기한 점령에 따르는 막대한 군사적·행정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다.⁸⁾ 점령 이후 이미 일본의 구관료기구와 구관료들을 간접통치에 이용하고 있던 G.H.Q.의 입장에서 천황을 전범으로 처리한다면 일본 구행정체제의 협력을 얻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⁹⁾ 이러한 과정에서 천황은 전범에서 제외되었고, 1946년 2월 13일 맥아더는 ‘상징천황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제정을 제시했다. 천황 퇴위와 인민정부수립을 주장하는 일본공산당 주도의 헌법개정과 천황의 처벌을 주장하는 극동위원회에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맥아더는 일본정부에 자신의 헌법초안 수용을 요구한다.¹⁰⁾ 그 과정에서 “맥아더는 히로히토 천황에게 인간선언을 종용하여 관철”¹¹⁾시켰고, 결국 1946년 4월 10일 총선거 실시

5) 백운용(2006) 「점령전후 미국의 일본 천황제 개혁에 관한 연구」 『일본어문학』 33, 한국일본어문학회. pp.455-478 중 p.468. 참조.

6) 그래서 도쿄재판은 ‘승자의 재판’, ‘미국의 재판’으로 비난받기도 한다(이장희, 앞의 논문, p.208 참조).

7) 위의 책, p.210.

8) 백운용, 앞의 논문, p.471. 참조.

9) 위의 논문, p.472. 참조.

10) 위의 논문, pp.474-475. 참조.

11) 이장희, 앞의 논문, p.211.

로 신헌법이 제정됨에 따라 ‘절대 천황’은 ‘상징 천황’으로 변모하게 되고, 이렇게 전범재판에서 면책된 후 신격제에서 인격제로 변모한 쇼와천황(昭和天皇, 1901-1989)은 1989년 1월 7일 자연사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천황의 면책은 냉전시대에 투르만 대통령과 맥아더 사령관이 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천황을 살려두는 것이 일본을 통치하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것이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방법이라는 판단¹²⁾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 동안 도쿄재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은 ‘천황의 전범 처벌면책’, ‘반인도적 범죄 기소보류’, ‘731세균부대 죄상 은폐’, ‘A급 전범 19명 석방’ 등인데¹³⁾, 그 중에서도 전후 7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쟁 책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데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문제는 역시 ‘천황의 면책’이라 할 수 있다. 즉, 천황이 면책됨으로써 전쟁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것이다. 전쟁의 수행자는 있으나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으며 오히려 일본국민 모두 전쟁의 피해자가 되어버린 것이다.¹⁴⁾ 흔히 말하는 일본인들의 ‘피해자 의식’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즉, 천황과 천황제를 유지하려는 일본의 권력층과 국제법적 원칙보다 자국의 정치적 이해를 우선시 한 미국 정부¹⁵⁾가 천황을 면책함으로써 결국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존재하는 특이한 전후 현상을 빚어낸 것이라 하겠다.

「판도라의 종」에서 다루어진 ‘천황의 전쟁 책임’ 문제는 전쟁 중 미국의 원폭 투하를 막지 못하고 일본국민의 희생을 초래한 ‘천황의 과오’에 국한되어 있다.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개전(開戰)’에 대한 책임과 ‘패전 전후 천황제 존치’ 등의 문제는 작가의 인식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즉, 앞서 말한 전쟁의 피해자에 해당되는 일본국민의 희생에 대해 ‘천황의 과오’를 들어 비판적 메시지를 전개한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99년 시점에서 뒤늦게 ‘천황의 과오’를 다룬 연극이 공연되고, 그것이 주목을 받는 현상 역시 도쿄재판에서 정치적 판단에 의해 천황이 면책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2) 위의 논문, 같은 쪽 참조.

13) 위의 논문, 같은 쪽 참조.

14) 가라타니 고진, 앞의 책, p.150. 참조.

15) 이장희, 앞의 논문, p.196.

3. 「판도라의 종」에서 제기된 문제의식

3.1. 전쟁¹⁶⁾에 대한 문제의식

3.1.1. 전쟁의 성격 규정

「판도라의 종」은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의 나가사키(長崎)와 여왕이 지배하는 고대의 해적왕국을 오가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현대의 나가사키에서는 핀커톤¹⁷⁾재단의 후원으로 고대유물 발굴사업이 진행되는데, 고고학자들의 발굴조사에 의해 고대에 존재했던 왕국의 비밀이 밝혀진다. 고대 왕국에서는 미친왕을 가두고 거짓 장례를 치른 후 그를 대신하여 14세의 여왕 히메조(ヒメゾ)가 왕위에 오르고, 원폭의 참혹함을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는 장의왕 미즈오(ミズオ)가 고대에 다시 살아나 죽은 자들의 장사를 지낸다. 해적 행위로 들어온 판도라의 종 속에는 왕국을 멸망시킬 ‘또 다른 태양’, 즉 원자폭탄에 대한 기록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미리 해독한 ‘미래’라는 적국은 해적왕국이 그 방법을 알아내기 전에 판도라의 종을 파괴하려 한다. 적국으로부터 최후의 통첩을 받은 어린 여왕 히메조는 자신과 함께 판도라의 종이 땅에 묻혀버리면 적국의 공격을 피하고 왕국을 구할 수 있다며 장의왕 미즈오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판도라의 종 속에 들어가서 종과 함께 땅에 묻힌다. 현대의 나가사키에서는 발굴단의 조수인 오즈(オズ)가 판도라의 종에 숨겨진 비밀을 캐내지만 핀커톤 재단은 왕국과 여왕에 관한 비밀을 숨긴 채 판도라의 종을 미국으로 운반해간다. 미국으로 떠나는 오즈의 애인 다마키(タマキ)는 종 속에 쓰여 있는 ‘또 다른 태양’이 일본을 위협할 때 고대의 히메조가 그랬던 것처럼 왕이 자기를 희생하여 일본을 구할 것이라고 말하고 나가사키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한다.

이렇게 전개되는 「판도라의 종」에서 고대 왕국은 약탈을 일삼는 ‘해적왕

16) 여기서 전쟁은 ‘중일전쟁(1937.7.7-1945.9.2)’과 ‘태평양전쟁(1941.12.8-1945.9.2)’을 모두 포괄한 것이다.

17)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에 등장하는 미국인 해군사관 ‘핀커톤 Pinkerton’의 인명을 따온 것. 극중 핀커톤 부인은 「나비부인」에서 일본인 여성을 배신하고 떠나는 핀커톤의 손녀라는 설정이며, 핀커톤 부인은 이 재단이 나비부인을 죽게 만든 할아버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나가사키에서 발굴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노다 히데키, 명진숙 역(2007) 「판도라의 종」 한일연극교류협의회 편 『현대일본희곡집3』, 도서출판 모아. p.260. 참조).

국’으로 설정되어 있다. 현대 나가사키의 고대유적 발굴지는 “일곱 개의 바다를 건너” 약탈해 온 물건들로 마치 “박물관이 송두리째 문힌 것”¹⁸⁾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고대와 현대를 잇는 매개물인 ‘판도라의 종’ 역시 ‘판도라’라고 하는 도시 근처에서 해적질을 하여 약탈해온 물건이다. 미즈오는 전장(戰場)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미즈오 : 평상시처럼 배를 해안에 두고는 모든 병사들이 내키는 대로 약탈을 하고, 싸움이 끝나자 온통 사망이 시체로 뒤덮였소.¹⁹⁾

그러나 이러한 약탈 행위는 왕국에서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심지어 어린 여왕은 약탈해 온 물건에 대해 호기심을 표하기도 한다. 단지 왼쪽의 광경을 기억에 담고 고대로 온 장의왕 미즈오만이 전쟁이 끝난 후 습관적으로 시체들을 거두어 묻어주기를 반복한다.

하지만 ‘판도라의 종’이 울리고 난 이후 약탈밖에 모르던 왕국은 공격을 당하기 시작한다. “아무도 적의 모습은 본 적이 없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해안에는 우리 병사의 시체가 산더미”²⁰⁾라는 한니발의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적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왕국을 위협한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적국의 이름은 바로 ‘미래’다. 즉, 앞으로 다가올 ‘미래’라는 시간이 왕국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 ‘미래’에서 적은 ‘판도라의 종’ 안쪽에 숨겨진 ‘또 하나의 태양’을 폭발시키는 방법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약탈왕국을 공격하면서 최후의 통첩을 보낸다.

고대의 미래참모 : 태양이 히메조의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의 바로 위에 왔을 때 태양을 폭발시키는 겁니다. [...]

고대의 미래의왕 : 그런 게 가능한가?

고대의 미래참모 : [...] 판도라의 종 내부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일찍이 해독 하였습니다.

고대의 미래의왕 : 그럼, 히메조의 나라도 그 또 하나의 태양을 폭발시키는 방법을 알아낼 지도 모르겠네.

18) 위의 책, p.262.

19) 위의 책, p.270.

20) 위의 책, p.285.

고대의 미래참모 : 그렇죠. 판도라의 종의 비밀을 알게 되면.

고대의 미래의왕 : 그렇게 되면 이 나라는 망하겠군.

고대의 미래참모 : 그러니까 한 시라도 빨리 투하해야 합니다.²¹⁾

여기서 ‘미래’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한 현대의 미국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미래’에는 단 하나의 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군국주의 일본은 왕국의 또 다른 적이다. 그 적들은 고대의 여왕인 히메조의 존재가 황국의 ‘신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가사키에서 발굴된 ‘판도라의 종’ 내부의 히메조 이야기를 지우려 한다.

히메조 : 꿈. 꿈을 꿔. 판도라의 종 바로 밑에서. 내가 싸우고 있는 것은 히메조라고 하는 이름을 이 역사에서 지우려고 하는 인간들이야. 더욱이 그들은 나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질 않아.²²⁾

결국 ‘미래’의 공격을 받던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고대의 히메조는 ‘판도라의 종’과 함께 땅 속에 묻히고, 현대의 나가사키에서 다시 발굴된 ‘판도라의 종’은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는 1941년 12월 8일 미국으로 운반된다.

이처럼 고대의 해적왕국은 무모한 전쟁을 계속 하다가 적국의 공격을 받지만 왕조를 지배하는 권력층은 그 사실을 숨기다가 멸망 직전의 위기를 맞게 된다. 고대의 전쟁이 약탈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정은 현대에 일본이 행한 전쟁 역시 침략전쟁이라는 인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읽을 수 있다. 만약 과거의 전쟁에 대한 명분을 인정한다면 작품 속에서 고대의 왕국이 해적왕국이며, 현대의 나가사키 항구에는 약탈해 온 물건들로 가득하다는 설정은 불필요했을 것이다. 멸망 직전에 적으로부터 최후의 통첩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과거 일본의 개전과 패전 상황을 비판적으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가상의 고대 왕국에서 벌어진 전쟁은 침략에서 시작되어 무모하게 계속되다가 이길 수 없는 강대국에게 패배하는 태평양전쟁을 상기시킨다.

21) 위의 책, p.313.

22) 위의 책, p.293.

3.1.2. 전시(戰時) 체제에 대한 비판

노다의 작품에서 여왕 히메조는 14세의 천진난만한 소녀이다. 그녀는 전쟁의 원인도 경과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위기 상황이 닥친 후에야 비로소 전황을 파악하게 된다. 여왕 히메조가 왜 그 사실을 숨겼는지에 대해 추궁하자 7대에 걸쳐 왕을 섬겨 온 히이바아는 “왕국을 지키기 위해 때론 감추는 게 나올 때도 있”²³⁾다고 말한다. 이럴 경우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신하에게 있는 것이지 여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전왕(前王)은 ‘미친 왕’으로 감금된 상태이다. 히이바아와 한니발은 ‘미친 왕’을 감금하고 거짓 장례를 치른 후 그 여동생인 히메조를 왕의 자리에 앉힌 것이다. 이렇게 「판도라의 종」에서는 왕보다 왕을 보필하는 신하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히이바아와 한니발로 대표되는 무리들은 장의왕에 의해 왕국의 비밀이 알려지고 여왕이 그에 동조하자 여왕을 제거하기 위해 다시 쿠데타를 획책하는데, 히이바아는 그 쿠데타의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히이바아 : 그래, 난 7대에 걸쳐 이 나라를 섬겼어. 이 몸은 한 왕을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야. 나는 이 나라의 이 군주제도를 섬기는 신하야. 그러니까……

한 니 발 : 그러니까?

히이바아 : (주위를 확인하고) 어쩔 수 없이 왕을 바꿔치기 해야 해.

즉, 쿠데타를 일으켜 히메조를 퇴위시키고 다시 미친 왕을 왕위에 앉히려는 것은 다름 아닌 왕조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늙은 히이바아는 그것이 바로 신하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임을 주장한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왕조의 비밀을 알고 있지만 진실을 외면한다. 전왕이 죽지 않고 미친 상태로 감금되어 있다는 것도, 또한 보이지 않는 적에 의해 왕국이 현재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도 이미 공표되지 않았을 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쿠데타에 의해 히메조를 피고로 하는 인민재판이 열리지만 쿠데타 세력들이 날조한 거짓에 모두 속는 척하며 가담한다. 왕조를 위협에 빠뜨린 모반자로 몰려 재판장에 선 히메조는 다음과 같이

23) 위의 책, p.288.

말한다.

히메조 : [...] 이 나라에서 지금 올라버니가 살아 계신 것을 몰랐던 사람은 없습니다. [...] 공기처럼 사람들은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있었던 거죠. 이 공기를 광기라고 부르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나 그 공기를 당신들은 계속 들이마시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광기도 패배도 모두 계속 숨겨오고 있었던 거예요.²⁴⁾

미즈오 역시 히메조를 도와 ‘광기와 패배’를 숨긴 것은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제 “공기 같은 광기”와 “용기 있는 광기”²⁵⁾ 중 선택을 해야 한다면서 사람들을 종용한다. 약탈왕국에서 사람들은 광기와 패배에도 침묵하며 그것을 그저 공기처럼 들이마시고 있었던 것이다. 권력자들은 쓸데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헛되이 지고 있는데도²⁶⁾ 사람들은 진실에 침묵하면서 전쟁을 수행한다. 그것은 히메조와 미즈오의 말에 의하면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도라의 중」에서 왕국은 권력자들에 의한 은폐와 날조가 횡행하는 곳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태평양 전쟁 당시의 전시 체제, 즉 광기에 휩싸여 전쟁을 치르고, 그 과정에서 침묵해야 했던 일본 국민들의 상황을 빗대어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권력의 주체이다. 이 작품에서 왕가의 남매, 즉 자신이 미래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감금된 ‘미친 왕’과 주변 권력자들에 의해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여왕 히메조는 권력의 핵심에 있는 인물들이 아니다. 이 왕국의 실질적 권력은 대대로 근거리에서 왕을 조종해 온 히이바아와 군대를 지휘하는 한니발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권력자들에 의해 전장에 나아가 약탈행위를 하고,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을 받아 희생되는 것이다. 이렇게 권력의 주체가 왕이 아닌 그 주변의 인물들이기 때문에 날조와 은폐의 책임도 왕이 아니라 그 주변 인물에게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작품은 왕제 하에 일어났던 전쟁에 대한 비판이지 왕제

24) 위의 책, p.308.

25) 위의 책, p.309.

26) 위의 책, p.307.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처럼 고대왕국이 약탈왕국이었다는 설정,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숨기는 정부에 대한 묘사 등에서 이 작품이 일본의 군국주의와 전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과거 일본이 일으킨 전쟁은 ‘침략전쟁’이며,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을 날조하면서 국민들을 전쟁에 동원하고 불필요한 희생을 불러왔다는 주장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 그러나 권력의 주체를 왕이 아니라 왕의 주변 인물로 설정함으로써 과거 전쟁 당시의 천황제와는 성격이 다른 왕조체제를 상징하였다. 따라서 「판도라의 종」이 제기하는 문제는 천황제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천황 개인의 전시(戰時) 행위에 대한 비판으로 한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작품 속 히메조 여왕의 행위가 바로 패전하기 전에 쇼와천황에게 기대되었던 행위인 것이다.

3.2. ‘천황의 전쟁 책임’에 대한 문제의식

‘미래’라는 적국은 ‘또 하나의 태양’을 폭발시키는 방법을 약탈왕국이 알아내기 전에 최후의 통첩을 왕국에 보내온다. 전왕(前王)을 대신해 왕위에 오른 뒤 자신의 이름이 몇 천 년이나 역사에 올려 퍼지는 그런 훌륭한 왕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히메조는²⁷⁾ 적국이 보내온 최후의 통첩이 이미 오래 전에 도착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히이바아에게 묻는다.

히 메 조 : 년 알고 있었던 거야, 이 최후의 통첩.

히이바아 : 어렵פות이.

히 메 조 :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야?

히이바아 : 그 다음은 왕이라 불리는 사람만이 아는 일,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라지기 전날에.²⁸⁾

결국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한 나라의 왕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판도라의 종」에 등장하는 히메조 여왕의 행동은 패전 전후에 쇼와천황이 보여준 행동과 확연하게 대비된다. 적국

27) 野田秀樹(2000) 「バンドラの鐘」 『20世紀最後の戯曲集』, 新潮社. p.94 .참조.

28) 위의 책, p.126.

이 자신의 왕국에 ‘또 하나의 태양’을 떨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나라를 버리고 도망치려고 우왕좌왕한다. 왕국이 망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히메조는 적국이 ‘또 하나의 태양’을 떨어뜨리기 전에 자기 스스로 땅에 묻힐 결심을 한다.

히메조 : 왕은 묻는 것을 두려워해선 안 돼. 그리고 묻히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 묻히는 것이 마지막 왕의 일이거든. 내가 죽었다고 들으면 내 이름이 여기서 사라지면 히메조의 나라에 미래는 분명히 또 하나의 태양을 투하하진 않을 거야. 그러니 물어다오, 나를.²⁹⁾

왕국의 멸망을 막기 위해 땅 속에 묻히기를 원하는 히메조에게 장의왕 미즈오는 살아 있는 사람을 묻는 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 거절한다. 그러나 히메조는 자신과 함께 판도라의 종을 묻어서 왕국을 구하고자 장의왕을 설득한다.

히메조 : 판도라의 종을 흙 속으로 보내는 거야. 커다란 구덩이를 파고, 이 종을 묻어줘. 깊이깊이 묻는 거야. 나와 함께. 또 하나의 태양을 폭발시키는 기술도 숨을 거두는 거야. 미즈오, 어렵지 않아. 이건 일이야. 묻는 것은 당신의 전문이잖아? 그리 묻히는 것이 망하기 전날의 왕의 마지막 업무. 이걸 할 수 없다면 장의왕이란 이름을 내걸면 안 되지. 그걸 못 하는 자는 망하기 전날의 여왕이라고 불러서도 안 되고.³⁰⁾

이렇게 히메조는 미즈오의 도움을 받아 왕국이 멸망하기 전날 판도라의 종과 함께 땅 속에 묻힌다. 여기서 그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일(仕事)’이라고 말한다. 멸망을 목전에 둔 나라의 왕으로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은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죽음으로 ‘왕권과 왕제(王制)와 왕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종결되는 것이라는 해석도 설득력이 있다.³¹⁾

29) 노다 히데키, 앞의 책, p.316.

30) 위의 책, pp.316-317.

31) 川崎賢子(2001) 「蝶々婦人シンドロームとその切斷をめぐって」 『ユリイカ』 448. pp.182-187. 중

한편 태평양전쟁의 개전일인 1941년 12월 8일, 미국으로 떠나는 다마키는 미국이 고대의 지혜를 빌려 '또 하나의 태양'을 폭발시키지 않을까 염려하는 오즈에게 “일본에는 왕이 있”³²⁾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마키 : [...] 만약 미국이 또 하나의 태양을 폭발시키려 해도 왕이 지켜줄 거야. 멸망하기 전의 히메조처럼, 히메조가 이 땅을 구원한 것처럼 왕이라면 반드시 그 땅이 멸망하기 전에 꼭 자기 몸을 묻을 거야.³³⁾

만약 국가가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고대의 히메조처럼 일본의 왕도 반드시 자기를 희생하여 나라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한 것이다.

「판도라의 종」에서 히메조가 말하는 멸망하기 전날 해야만 하는 '왕의 일'은 과거 전쟁에서 천황이 하지 못한 일이다. 전쟁 말기에 군부는 천황 개인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다시 말해 '국체 수호(国体護持)'를 위해 항복의 시기를 지연시켰다. 이탈리아와 나치 독일이 항복한 이후에도 “일본이 전쟁을 계속한 것은 얼마간의 승산이나 전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항복의 조건으로 천황제 '수호'를 꾀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며, “그 결과 수백만 명의 병사와 시민이 전장이나 도시 폭격, 나아가 두 번의 원폭 투하에 의해”³⁴⁾ 희생되었다. 즉, 군부와 천황이 이른 시기에 결단을 내렸다면 원폭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³⁵⁾ 그런 의미에서 노다가 주시하는 지점은 원폭으로 희생된 일본 국민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희생에 대한 책임은 분명 군부와 천황에게 있지만 작가는 특히 천황의 책임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발표 당시 「판도라의 종」이 화제를 불러일으킨 데에는 이전의 희곡들과 달리 천황의 전쟁책임론을 직접적으로 다뤘기 때문이다. 그것은 “천황이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폭 투하를 막지 않았다는 패전 당시의 책임론”³⁶⁾을 1999년 시점에서 연극을 통해 제시했다는 점을 평가한 것이다. 같은 해에 발표

p.187 참조.

32) 노다 히데키, 앞의 책, p.318.

33) 野田秀樹, 앞의 책, p.129.

34) 가라타니 고진, 앞의 책, p.149.

35) 박진우 편(2006) 『21세기 천황제와 일본』, 논형. p.138 참조.

36) 大笹吉雄 外(2001) 「共同討論 - 演劇にとって天皇制とは何か?」 『シアターアーツ』 13, AICT 國際演劇評論家協會日本センター編輯委員會. pp.8-31 중 p.22 참조.

된 사카테 요지의 「천황과 입맞춤」³⁷⁾ 역시 미국 점령기 G.H.Q.의 영화정책과 현대의 국기국가법 제정³⁸⁾을 둘러싼 문제를 다루면서 작가는 문제의 원인으로 ‘천황의 전쟁 책임’을 들고 나왔다. 흥미로운 것은 세기말의 시집에서 그 동안 연극이 암시적으로 다루어 왔던 천황제와 천황에 대한 비판을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표출했다는 점이다.

일본 사회에서 ‘침략전쟁’이라는 인식이 생겨나는 것은 1980년부터 1990년대로 이어지는 시기이다.³⁹⁾ 종전 후 1950년대, 그리고 1960년대 초반까지도 내셔널리즘이 뒤섞인 종전 이전의 전쟁관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그 후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일본은 “전쟁 책임을 문책당하지 않고”⁴⁰⁾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1980년대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러다가 “냉전체제가 붕괴된 후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가 아시아에서 제기되면서 비로소 일본인은 전쟁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⁴¹⁾하게 된 것이다. 공공롭게도 이 시기에 일본은 버블경제의 붕괴라는 대위기를 맞게 되고, 이러한 침체의 분위기에서 전쟁 책임이라는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었으며 이때 비로소 일본 사회에 천황제에 대한 비판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천황의 전쟁 책임’을 직접 다룬 희곡들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 대중의 정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발표된 작품들이라 하겠다.

4. 「판도라의 종」이 제기한 문제의식의 한계

노다는 한 인터뷰에서 이 작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연극계에는 좌익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만드는 연극은

37) 사카테 요지(2003) 「천황과 입맞춤」 한일연극교류협의회 편 『현대일본희곡집1』, 연극과 인간.

38) 1999년 8월 9일 일본의 참의원에서 국기와 국가에 관한 법률이 가결되었다. 히노마루(日の丸)와 기미가요(君が代)는 일제 침략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이 법률의 제정은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로 간주되어 주변국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임성모(1999) 「국기 국가법 제정을 통해 본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역사교육」 『동아시아 역사연구』 6, 동아시아역사연구회. pp.161-186 중 pp.161-162. 참조).

39) 박진우 편, 앞의 책, p.252. 참조.

40) 위의 책, p.251.

41) 위의 책, 같은 쪽.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결론을 내려버리기 때문이에요. [...] 「판도라의 종」도 내가 스스로 결론짓지 못하니까 천황에 대해 쓴 거죠. 그건 결론짓고 싶다, 가르쳐줘, 그런 거예요.⁴²⁾

작가로서 매우 진솔하게 작의를 표현한 것으로 연극이 관객에게 어떤 문제에 대한 결론을 전달하기보다 천황의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스스로도 답을 찾고 싶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한 의도로 쓰인 작품에서 노다는 천황을 비판하고 있지만 전쟁과 책임에 대한 인식의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먼저 「판도라의 종」에서 일본을 약탈왕국으로 설정한 것은 일본이 행한 전쟁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한 것이며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침탈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작품에는 일본의 강력한 적국인 미국에 대한 인식만이 드러날 뿐 약탈당한 여러 나라, 즉 아시아의 전쟁 피해국들과 피해국민들에 대한 입장은 읽어들 수가 없다.⁴³⁾ 이는 작가가 과거 미국과의 전쟁에서 희생당한 일본 국민들만을 피해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 피해의 책임을 천황에게 묻는 것은 그러한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은 고대 왕국과 현대 일본, 양쪽에서 권력자들에 의해 진실이 은폐되고 거짓이 날조되는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작가는 과거 전쟁 중에 자행되었던 일본 정부와 군국주의자들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작품 속에서 전쟁을 주도한 주체는 왕이 아니라 왕의 측근들이다. 미친 왕과 히메조 여왕은 주변 권력에 의해 왕위를 빼앗기거나 쿠데타로 위기를 맞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오히려 은폐와 날조의 피해자로 그려져 있으며 특히 히메조 여왕은 그러한 행위를 막고 왕조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설정은 과거 천황을 중심으로 가동되었던 일본의 전시 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쇼와천황은 그저 의회의 의결에 승인을 한 정도의 입헌군주가 아니라 천황제 국가의 최고책임자로서 전쟁에 깊이 개입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또 한 가

42) 野田秀樹, 中澤新一(2001) 「對話:天皇制という芸能」 『ユリイカ』 448. pp.66-87. 중 p.70.

43) 이 점에 대해서 일본의 비평가인 모리야마 나오토(森山直人)는 “‘해적국=대일본제국’의 ‘피침략국=아시아인’에 대한 책임이라는 시점”이 결여된 것이 정치극으로서의 약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森山直人(2001) 「野田秀樹 : 「パンドラの鐘」と受容者の倫理」 『シアターアーツ』 13, AICT國際演劇評論家協會日本センター編輯委員會. pp.95-98 중 p.97 참조).

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작품이 전쟁 중 천황의 행위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천황제 그 자체를 비판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자신을 희생해서 왕국을 구하는 영웅적인 군주를 등장시킴으로써 작가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이상적 왕제(王制)를 제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설정 위에 노다는 이 작품에서 ‘천황의 전쟁 책임’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었는데, 그 문제가 바로 작품의 주제이며 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작품 속에서 순진무구한 14세의 여왕 히메조는 자신의 용기 있는 희생으로 왕국의 멸망을 막아낸다. 그녀는 약탈전쟁의 직접적인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결백하지만 여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함으로써 국가와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히메조의 행위가 패전 전후 천황제를 존치하고 자신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국민들을 희생시킨 쇼와천황의 행위와 명백히 다르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작가가 만들어낸 히메조라는 인물은 로맨틱한 영웅 서사의 주인공에 가깝고, 이러한 왕이 등장하는 이야기로 ‘피해자 의식’을 가진 일본 국민들에게 위안을 줄 수는 있었을지 모르나 지난 전쟁의 본질과 전쟁 피해국에 대한 책임이라는 문제까지 시야에 넣은 작품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말았다. 즉, ‘천황의 전쟁 책임’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이 과거 일본이 행한 전쟁에 대한 총체적 인식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일본 국민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라는 감정을 토대로 도출한 인상이 짙다는 점이 한계로 들어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내용적으로 「판도라의 종」은 종래의 ‘원폭문학(原爆文学)’의 ‘국민’적인 한계를 거의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도메스틱한 소비의 대상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⁴⁴⁾

노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천황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원폭투하를 막지 못했다는 패전 상황에서의 히로히토 천황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⁴⁵⁾ 「판도라의 종」은 전쟁에 대해 무지한 여왕이 위기 상황에서 자기를 희생하여 백성을 구했다는 최고 권력자의 행위를 정의로운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왕으로서 해야만 하는 의무’에 관한 것이지 ‘침략전쟁의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책임’이라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쟁의

44) 위의 논문, p.97 참조.

45) 大笹吉雄 外, 앞의 토론, p.22 참조.

문제가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는 가장 큰 이유는 천황의 면책에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천황에게 전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책임을 무조건 구조, 즉 천황제에 돌린다면 개인은 책임을 면하게 된다.⁴⁶⁾ 전쟁의 책임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천황에게 전쟁 책임을 묻고 퇴위시킨다면 그것은 ‘형사적 책임’을 물은 것에 해당된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책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1941-)은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를 논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뉘른베르크 재판이 열릴 즈음 야스퍼스(Karl Jaspers, 1883-1969)가 「죄책론」이라는 강연에서 분류한 ‘전쟁의 죄’를 인용한 바 있다.⁴⁷⁾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은 천황 처벌, 또는 천황 퇴위라는 ‘형사적 책임’을 물은 뒤 다음으로 ‘정치적 책임’, ‘도덕적 책임’, 그리고 ‘형이상학적 책임’의 문제를 논해야 한다.⁴⁸⁾ 모든 행위가 타의에 의한 것이었고,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한다면 천황에게 모든 책임이 집중되고, 나머지 일본인은 모두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또 정작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정치적인 책임까지 물은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아직 ‘도덕적 책임’과 ‘형이상학적 책임’이 남아 있는 것이다. 노다는 천황과 전쟁 책임이라는 문제를 다루었지만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사고를 작품 속에 투영하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이 희곡이 ‘천황의 전쟁 책임’을 일단 인정하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그보다는 거품경제 붕괴 후, ‘잃어버린 10년’, 제2의 패전, ‘제3의 개국’이라고 말하는 세기말⁴⁹⁾에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천황에 대한 비판적 감성을 신속하게 반영한 ‘대중적 판타지 연극’이라고 하는 편이 합당하다고 본다.

천황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기 때문에 희곡의 창의성이나 완성도를 떠나 일차적인 관심은 과연 이 작가가 이러한 ‘전쟁과 책임’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

46) 가라타니 고진, 앞의 책, p.153. 참조.

47) 야스퍼스의 ‘죄의 구별’에 대해서는 한국어 번역본 참조. 카를 야스퍼스, 이재승 역(2004) 『죄의 문제』, 도서출판 엘피.

48) 야스퍼스에 의하면 ‘전쟁의 죄’는 첫째,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형사상의 죄’, 둘째, 정치적인 지지와 지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동하지 않은 책임과 관련된 ‘정치상의 죄’, 셋째, 법률적으로는 무죄이나 불법적인 일을 행한 권력을 지지했거나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느끼게 되는 ‘도덕상의 죄’,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느끼는 죄책감으로 대표되는 ‘형이상학상의 죄’로 구분된다(가라타니 고진, 앞의 책, pp.131-133 참조).

49) 川崎賢子, 앞의 논문, p.183. 참조.

고 있는가 하는 데에 둘 수밖에 없고, 그 인식을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은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비정치적인 정치성”으로 “막연한 양심적 행위에 자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⁵⁰⁾가 말해주듯 「판도라의 종」은 일본인들의 시각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작품이다. 또한 위에 언급한 한계점들이 특정 일본작가의 특정 작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이 주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두고 싶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천황문제를 다룬 일본 현대연극의 한 예로서 노다 히데키의 「판도라의 종」을 선택하여 작품에서 제기된 ‘천황의 전쟁 책임’의 본질과 그 한계점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작가가 ‘전쟁의 성격’과 ‘전시 체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궁극적으로 패전 당시 원폭 투하를 막지 못해 막대한 희생을 초래한 히로히토 천황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였지만 과거 일본이 행한 전쟁에 대한 인식 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일본이 행한 전쟁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패전’ 당시 천황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개전’에 대한 ‘가해책임’은 논외로 함으로써 아시아 여러 나라 국민들의 피해와 희생을 시야에 넣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둘째, 작품 속에서 왕이 아니라 측근 권력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침략전쟁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천황제 군국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왕제와 왕권을 제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셋째, ‘천황의 전쟁 책임’ 문제를 거론함에 있어 원폭 투하를 막지 못한 천황의 행위만을 비판함으로써 일본이 행한 전쟁의 본질과 포괄적 책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전쟁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전적으로 천황에게 전가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0) 森山直人, 앞의 논문, p.97. 참조.

이러한 점들은 일본국민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피해자 의식'이 이 작품에서도 반복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 희곡은 사회와 역사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것이라기보다 일본인들의 대중적 정서를 가감 없이 반영하여 위안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연극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위로하는 '집단적 치유'의 기능인 것이다. 그런 점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보편적 가치를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한정적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빈번한 한일연극의 교류로 인해 다양한 일본의 현대 희곡이 출판과 공연을 통해 국내에 소개되고, 또 민간 차원에서도 일본희곡이 번역되어 공연되는 일이 잦아졌다. 그 과정에서 낯선 형식이나 흥미를 유발하는 연극적 방식 등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한일 간 공통분모인 현대사와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 상호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향후 현대사에서 주제를 도출한 일본 연극에 주목하면서 그 사회적·역사적 인식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문]

텍스트

노다 히데키, 명진숙 역(2007) 「판도라의 종」 한일연극교류협의회 편 『현대일본희곡집3』, 도서출판 모아.

사카테 요지, 이혜정 역(2003) 「천황과 입맞춤」 한일연극교류협의회 편 『현대일본희곡집1』, 연극과 인간.

단행본

가라타니 고진, 송태욱 역(2001) 『윤리 21』, 사회평론.

박진우 편(2006) 『21세기 천황제와 일본』, 논형.

스즈키 마사유키, 류교열 역(1998) 『근대 일본의 천황제』, 이산.

오자사 요시오, 송선호 역(2005) 「안그라의 탄생 - 60년대 연극」 오자사 요시오, 김의경 외 편역 『20세기의 일본연극』, 연극과 인간. pp.35-68.

카를 야스퍼스, 이재승 역(2004) 『죄의 문제』, 도서출판 엘피.

논문

- 박진우(2015) 「일본의 패전과 천황의 전쟁 책임 - '성단'과 평화주의의 허구」 『동북아역사논총』 50, 동북아역사재단. pp.121-157.
- 백운용(2006) 「점령전후 미국의 일본 천황제 개혁에 관한 연구」 『일본어문학』 33, 한국일본어문학회. pp.455-478.
- 이장희(2009) 「도쿄국제군사재판과 뉘른베르크국제군사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비교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5, 동북아역사재단. pp.195-246.
- 임성모(1999) 「국기 국가법 제정을 통해 본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역사교육」 『동아시아 역사연구』 6, 동아시아역사연구회. pp.161-186.

신문

경향신문, 2015년 9월 19일. 1면.

[日文]

テキスト

- 井上ひさし(2001) 「紙屋町さくらホテル」 『井上ひさし最新戯曲集』, 小学館.
- 田中千禾夫(1960) 「マリアの首」 『田中千禾夫戯曲全集第1巻』, 白水社.
- 野田秀樹(2000) 「パンドラの鐘」 『20世紀最後の戯曲集』, 新潮社.
- 別役実(1969) 「マッチ売りの少女」 『別役実戯曲集』, 三一書房.

単行本

- 色川大吉(1991) 『昭和史と天皇』, 岩波書店.
- 大沼保昭(2007) 『東京裁判, 戦争責任, 前後責任』, 東信堂.
- 笠原一男(1965) 『詳説日本史研究』, 山川出版社.
- 吉田裕(1995) 『日本人の戦争観』, 岩波書店.

雑誌

- 大笹吉雄 外(2001) 「共同討論 - 演劇にとって天皇制とは何か?」 『シアターアーツ』 13, AICT国際演劇評論家協会日本センター編輯委員会. pp.8-31.
- 川崎賢子(2001) 「蝶々婦人シンドロームとその切斷をめぐって」 『ユリイカ』 448. pp.182-187.
- 野田秀樹, 中沢新一(2001) 「対話: 天皇制という芸能」 『ユリイカ』 448. pp.66-87.
- 森山直人(2001) 「野田秀樹: 「パンドラの鐘」と受容者の倫理」 『シアターアーツ』 13, AICT国際演劇評論家協会日本センター編輯委員会. pp.95-98.

| |
|------------------------|
| 논문 투고 일자: 2015. 12. 28 |
|------------------------|

| |
|-----------------------|
| 논문 심사 일자: 2016. 1. 31 |
|-----------------------|

| |
|----------------------|
| 계재 확정 일자: 2016. 2. 4 |
|----------------------|

<요지>

野田秀樹의 「パンドラの鐘」に現れる天皇の戦争責任に関する研究

宋瑄浩

本研究は1980年代より日本の現代演劇の新しい流れを主導してきた劇作家兼演出家である野田秀樹の1999年作「パンドラの鐘」に現れた天皇の戦争責任の問題を把握することにその目的を置いたものである。研究の意図は1990年代末ごろ発表され、演劇界の注目を浴びた野田の戯曲が提起する問題の本質とは何か、また日本を代表する現代劇作家がどのような歴史認識を持っているのかを明らかにすることである。現在日本で大衆的人気を集めており韓国の演劇界にも知られている劇作家が天皇の戦争責任という政治的、歴史的な主題と向かい合っただのような問題意識を導き出したのか、そしてその問題意識の限界は何なのかを探ってみるのは特に日本現代演劇の社会的姿勢を理解するのに役立つと思われる。

敗戦後天皇の免責は現在まで解決されていない過去の歴史問題の根本的な原因の一つとして働きつつあり、それは日本だけではなくアジアの近代史、ひいては世界史的に究明されるべきことに違いない。従って現代演劇がこの問題を取り扱う場合過去の戦争で被害を受けたアジア諸国と被害国民を視野に入れるのは当然のことである。もし天皇に対する批判が日本国民の立場ことどまってしまうのであればそれは所謂‘被害者意識’の表出としか受け取られなくなり、そうなればその批判から日本国内的視点かもたらず限界点を確認することになる。本研究では先ず歴史的背景に当る極東国際軍事裁判に対して論じた後、本論で野田の「戦争に関する問題意識」と「天皇の戦争責任に関する問題意識」を分析し、その問題意識の意義と限界を明らかにする方法を選択することにした。

Study on the Japanese Emperor's Responsibility for War through Hideki Noda's
"Pandora no Kane"

Seon-Ho Song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Japanese emperor's responsibility for war through "Pandora no Kane" published in 1999 by Hideki Noda, a playwright and director who has led the new trend of Japanese modern theater since the 1980s. This study raises questions on the nature of the problem Noda presents through his drama, which was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theatrical world when it was first released in the late 1990s. It also understands what type of historical perception Japan's renowned modern playwright has. It is anticipated that exploring the critical mind and its limit regarding the emperor's war responsibility, which presents quite a political and historical idea of the playwright loved by both the Korean and Japanese theatrical circles, would help understand the social attitudes of modern Japanese theater.

The immunity of the Japanese emperor from the Second World War remains a root cause of unresolved issues of past history, as well as an issue to be investigated from the modern history of Japan, Asia, and further beyond to the world. In this regard, it is right to take into consideration many Asian countries and their people, who suffered due to the war and invasion, when modern dramas are to deal with this issue. If criticism of the emperor is limited to reflect the mind of the Japanese people, it can only be understood as an expression of 'victim mentality', only to confirm the limit of the domestic view of Japan represented in the drama. In order to investigate the meaning and limitations, this study will first discuss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then analyze Noda Hideki's critical view of the war and the emperor's war responsibility in the body of the research.